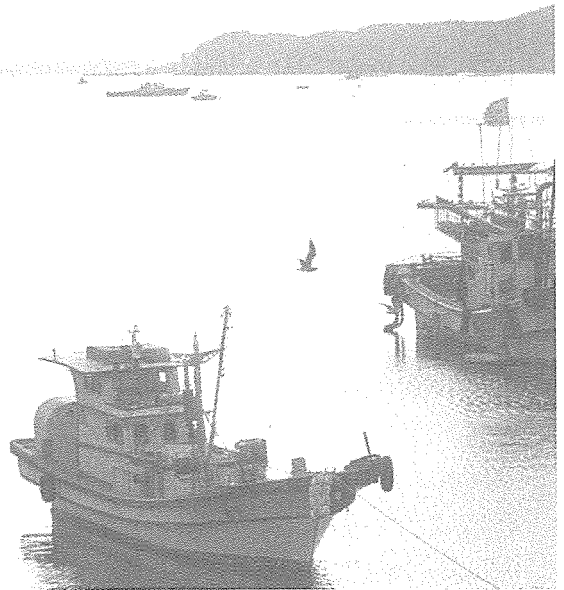


낙조 보며 12월 마감하고 겨울을 느끼는 여행

한국관광공사는 12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굴따기 즐기고, 낙조감상은 덤-경기 화성', '물안개 속에 녹아든 추억과 낭만을 찾아서 -강원 춘천', '마을을 지키는 당숲-제주 북제주' 등 3곳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꿀따기 즐기고, 경기 화성

낙조감상은 덤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추천계층 : 가족층, 연인층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와 제부도 사이의 바다는 썰물 때마다 바닷길이 열린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여행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에 이 바닷길이 '모세의 기적' 드라이브길이라고 소문나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바다 한가운데의 길이 드러나는 것은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밀물과 썰물의 교차 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신기하다고 여기면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즐겨 찾는다.

송교리 제부도 입구에는 매표소가 만들어져 있고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간표도 세워져 있다. S자로 여러 번 휘어지는 바닷길은 개펄 위에 차량 통행의 편리를 위해 시멘트로 포장됐다. 왕복 2차선 규모이며 제부도까지의 총연장 거리는 2.3km 정도이다.

제부도를 향해 바닷길을 달리는 도중 북쪽으로 등대전망대를 품은 누에섬이 보인다. 이 섬은 서신면과 안산시 선감도 사이의 탄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일단 제부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섬 남단의 매바위이다. 꼭대기에 매가 서식한다고 해서 매바위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온다. 보는 각도에 따라 먹이를 노리는 매, 하늘을 비상하는 매 등의 형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매바위 부근이다. 장화, 목장갑, 호미, 맛소금 등을 미리 준비해가면 좋다. 단 욕심을 부려 지나치게 많이 캐지 않도록 한다. 매바위 부근 외 다른 지역 갯벌은 주민들의 바지락 양식장이라서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

매바위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해안은 제부도해수욕장 해변이다. 동해안의 해수욕장 같은 분위기는 기대할 수 없지만 약간의 모래사장도 있고 간조 때면 길게 갯벌이 드러난다. 바다 건너로는 대부도, 영흥도, 자월도, 승봉도 등이 보인다. 제부도해수욕장과 제부도포구 사이 해안에는 절벽을 따라 갯벌 위에 산책로가 조성돼있어 제부도 여행의 묘미를 살려준다. 제부도 일주도로는 총 5.3km 거리. 바닷가도 산책하고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겨울바다의 낭만에 젖다보면 두세 시간은 금새 흘러간다.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낙조의 평온함을 맛보고 싶다면 서신면 궁평리의 궁평항을 찾아가 본다. 서신면 소재지에서 제부도 가는 길과 궁평항 가는 길이 갈라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궁평항 일대는 화옹 방조제 공사로 인해 어지러웠으나 지금은 항구 방파제 공사도 끝나고 주차장, 화장실, 간이횃집 같은 편의시설들이 자리를 잡아 한결 나들이 분위기가 좋아졌다.

물안개 속에 녹아든 추억과 낭만을 찾아서 강원 춘천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해가 바다 건너 충남 당진군 석문면의 당진화력발전소 주변 뒤로 떨어진다. 궁평항에서는 당진화력발전소 굴뚝 뿐만 아니라 국화도, 입파도, 풍도, 도리도 등의 섬과 서해대교의 장관도 시야에 들어온다. 이 궁평낙조는 화성8경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일몰의 풍광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이라면 꼭 한번 만나서 가슴에 담아올 일이다.

송산면 고포리에 가면 초경량항공기 체험비행에 도전해볼 수 있다. 마산포 바로 앞의 어섬 일대 개펄은 시화호 공사 이후 육지로 변하면서 섬의 운명을 마감하고 비행장으로, 패러글라이딩 연습장으로 대대적 변신을 했다. 어섬활공장으로 가면 초경량항공기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모터보트를 빌려 타듯 날씬한 동체의 비행기에 올라 시화호 상공 선회비행도 즐길 수 있다.

태안읍 송산리의 용주사에는 국보 제120호인 용주사 범종을 비롯 금동향로, 청동향로, 대웅전 후불탱화, 부모은중경판 등 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대웅전 앞의 회양나무 또한 천연기념물 제26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나무는 정조가 선친 사도세자를 위해 심었다는 고목이다.

낙성식이 있던 날 정조의 꿈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했다하여 절 이름이 용주사이다.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지은 사찰인만큼 답사객들은 절구석구석을 도는 동안 다시금 효심을 깨닫게 된다.

○문의전화: 화성시청 문화홍보과 (031)369-1505



위 치 : 강원 춘천시

추천계층 : 가족층, 연인층

청평사는 고려시대 뛰어난 학자였던 이자현, 조선시대의 김시습이 은거하였던 곳으로 청평사를 중심으로 한 고려시대 정원유적지 주변의 풍광이 뛰어나 지금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청평사의 주산인 경운산은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하여 오봉산이라 불리기도 하며, 등산 애호가들에게는 좋은 등산코스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청평사로 가는 길은 육로, 수로를 통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육로를 택한다면 춘천에서 양구방면 46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청평사 방면 배후령과 배치고개를 넘어 심산유곡 부용계곡의 짙은 숲과 물소리를 따라 들어갈 수 있으며 수로로 간다면 소양호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루트로 시간만 잘 맞춘다면 아름다운 소양호의 물안개 (일출 직후)와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선착장에서 내려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는



부용봉으로 가는 계곡이 있고, 좌측으로는 계류를 따라 오르는 산길이 있는데 이 방향이 청평사로 가는 진입로이다. 좌측 길을 따라 계류를 내려다보며 수림 사이의 산길을 20분 정도

오르면 이자현의 문수원 정원이 시작되는 거북바위가 있다. 바위를 따라 약 100여 미터 더 올라가면 구성폭포(九聲瀑布)의 청량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폭포는 구곡(九谷), 구송(九松)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이곳에서 청평사 입구 석계단까지 약 350m 구역의 진입공간에는 진락공 이자현의 부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승의 사리나 유골을 모신 부도와는 다르게 이곳과 관련된 학자를 모신 부도라는 점에서 이채롭다. 부도의 맞은편으로는 이자현이 문수원 정원을 조영하면서 만든 방지가 남아있는데, 주산인 오봉산의 봉우리를 비춘다 하여 영지(影池)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한다. 영지에는 세 개의 바위가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자현이 이곳 문수원 정원을 도가사상의 이상향인 봉래, 영주, 방장의 삼신산(三神山)에 비유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듯 하다. 이곳 영지는 절에 오르다가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자신의 모습을 영지 속에 드리워 심신을 정갈히 하고 속루(俗累)를 털어 버리기 위한 불가적인 상징과 함께 속세를 떠나와 이상향을 만끽하기 위한 도가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듯하다.

청평사를 둘러본 뒤 요사채 앞 계류를 따라 더 오르면 길가에 환적당, 설화당부도가 있고, 울창한 소나무숲을 지나 좀더 오르면 해탈문이 나온다. 이를 지나 서북쪽으로 140m 정도 가면 더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는 암벽에 '청평선동(淸平仙洞)'이라 새긴 각자(刻字)가 있는데, 이는 이자현이 은둔하여 선불하는 정원이자 자연으로 들어가는 산문의 역할을 하는 듯 싶다. 이 곳으로부터 약 200m 소계곡을 오르면 1979년에 세워진 5층석탑과 적멸보궁(寂滅寶宮)이 있다. 적멸보궁 옆 큰 암벽에는 청평식암(淸平息庵)이라 새긴 각자가 보이는데, 청평선동(淸平仙洞)과 청평식암(淸平息庵) 모두 이자현의 글씨라 전해진다. 다른 우리 전통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자현은 문수원 정원의 조영을 통해 자연미를 거부하고 인공미를 강조하는 정원을 꾸미는 속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적멸보궁을 지나 낙엽이 수북이 쌓인 등산로를 따라 오르는 길은 다소 험하긴 해도 오봉산 주변의 아름다운 산세가 펼쳐지는데, 정상으로 가면 이러한 오봉산 풍광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다.

정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길은 청평사 계곡 입구로 바로 이어지는 길과 극락전으로 이어지는 길로 갈라진다. 이 경로를 따라 청평사로부터 오봉산 정상까지 등산후 하산까지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 문의 전화 : 춘천시시설관리공단 (033)250-3891

마을을 지키는 당숲

제주 북제주



위 치 : 북제주군 애월읍
추천계층 : 가족층, 연인층

납읍난대림지대(천연기념물 375호)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장소는 아니다. 그러나 제주의 숨어있는 비경이라고 해도 좋을 듯 싶다. 2만 2천평에 걸친 지역에 울창한 상록수림으로 자연림의 원형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일명 금산공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제주군 서부지구에서 평지에 남아 있는 유일한 상록수림으로 후박나무, 생달나무, 종가시나무, 동백나무 등 60여종의 난대성식물이 자라고 있어 난대림박물관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납읍리는 예로부터 문촌으로 불리었는데 이곳 난대림 지대에서 마을의 유학자들이 시를 짓거나 담소를 나누는 휴양지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란단다. 지금 한창 감귤을 팔 때다. 험령한 돌담 넘어 시선을 고정시키면 탐스런 굴이 주렁주렁 매달린 굴나무를 감상하게 된다.

16번 국도를 제주로 가다보면 삼별초의 마지막 항전지인 항몽유적지가 을씨년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내성이 자리했던 터에 항몽순의비가 서 있으며 토성인 외성과 석성인 내성 그리고 삼별초가 과녁으로 쓰던 살맞은 돌과 김통정이 장군이 토성에서 뛰어 내릴 때 패인 발자국에서 생겨났다는 장수물 샘터도 남아 있다.



새별오름은 서부산업도로(95번국도)변에 있는 풀밭오름으로 정상에 오르면 한라산의 서북벽과 서쪽으로는 당오름, 정물오름 그리고 산방산과 시원스런 바다경치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전망포인트로 제주 서쪽에 자리잡은 오름 중에서 가장 호방한 눈 맛을 자랑한다.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그 모습이 마치 별모양을 닮았고, 초저녁 하늘에 홀로 빛나는 셋별 같다고 하여 '새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곳은 제주 서쪽 해안으로 떨어지는 일몰 감상 포인트이기도 하다. 음력 정월대보름이면 제주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제주 들불축제가 새별오름에서 열린다.

제주에서 해안도로를 달리는 것만큼 매력적인 코스는 없다.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절벽 위를 따라 달리는 하귀-애월간 해안도로는 아기자기한 펜션과 근사한 카페가 즐비하며 바닷가를 따라 소나무 숲과 벤치가 있어 연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북적인 여름해변과는 달리 한적한 협재해수욕장의 겨울 해변을 거니는 것도 색다른 맛이다. 해변 바로 앞에 있는 비양도는 드라마 '봄날'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다.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서있는 용수리 해안에서는 풍차마을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받고 고래 모양처럼 생긴 차귀도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땅의 기를 위해 바닷가에 세워진 방사탑도 발길을 멈추게 하고 절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제주 여인네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절부암도 눈 여겨 볼만하다

○ 문의 전화 : 북제주군 관광교통과 (064)741-0544